

한울 타리 2021 여름

보스톤한인교회 소식지
KCB Newsletter

Vol 51 No 2 2021. 8. 1
편집: 홍보위원회

올림픽을 보며

이영길 목사

요즘 어려운 가운데도 올림픽의 열기가 안방까지 전해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응원하는 나라는 세 나라가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그리고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몇년전 저희 교회 중고등부 자녀들이 단기 선교를 다녀 온 후 늘 기도드린 이유도 있고 지난번 안식일 기간 열흘간 다녀온 이유도 있습니다. 세 나라를 응원하니 여러모로 좋습니다.

한편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특히 당신의 택한 자들을 응원하시고 계시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보니 정신이 번쩍들었습니다. 올림픽 출전 선수들은 훈련 기간도 있고 또 어떤 경기는 한번 저도 회생의 기회도 있곤한데 우리는 이미 신앙의 올림픽 구장에서 매일 뛰어야 하는 선수가 아닐까요? 하루, 한 주가 지나면 되돌릴수가 없는...

코로나 기간 중에도 우리는 매일 예외 없이 올림픽 구장에 나서는 올림픽 선수들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경기에 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계십니다. 먼저 하늘 나라에 가신 성도님들도...

지난 6월 15일 주정부의 코로나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여러가지 안전수칙 등을 완화하고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는 비상사태 이전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모든 교회들의 동향을 감안 7월당회에서는 TF에서 마련한 Exit Plan을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이 후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급변하는 상황속에서 7월18일 속개된 당회TF에서는 보완된 임시 2부예배 순서와 안전수칙을 마련하였습니다.

7월 11일 당회 결정사항

1. 6/15 이후 소그룹 모임 (토요, 수요 성경공부, 교인2, 교육2부, 교육3부) 들을 허락하고, 모임에서 필요한 식사나 간식을 허용하기로 한다.
2. 7월부터 오전 11:30분에 드리는 대면 예배에 참여 인원수를 제한하지 않고, 무제한 참여 가능하도록 한다.
3. 8월 첫째주부터 팬데믹 전과 같은 시간 (Time frame) 으로 예배를 1부(오전 8:45)와 2부(오후 12))로 드리기 시작하기로 함.
(7월부터 예배예술회원은 1, 2부예배 준비를 시작한다
찬양대, 찬양팀, 방송실 등등 두 예배 모두 Hybrid 대면 & 비 대면 모두준비)
4. 8월부터 Youth Group예배 시작, 9월부터 Sunflower 예배를 시작하기로하다.

7월 28일 당회 TF 결정사항

- A. 주일 2부 예배의 예배순서 임시조정 건 팬데믹 이전 주일 2부예배 시작전에 찬양팀의 인도로 드렸던 ‘찬양’을 당분간 2부예배 ‘예배예로 부름’ 이후 ‘찬양’ 순서로 변경한다. 이에 ‘예배예로 부름’ 이후 드렸던 ‘찬송’과 ‘헌금’ 이전에 드렸던 ‘찬송’ 순서는 2부예배에서는 삭제기로 함.
(참고: 주일 1부 예배의 예배순서는 팬데믹 이전과 동일)
- B. 코비드19 델타 변이와 관련한 안전수칙 변경 건
 - 교회건물내 주일예배를 포함한 모든 실내모임에서 마스크 착용을 당분간 의무화하고, 주일예배시 찬양대와 찬양팀도 현장에서 찬양을 드릴 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다.
 - 교회건물내 각종 실내모임에서 다과나 음식을 나누는 것은 당분간 삼가 하도록 한다.

아직은 우리에게 전해지는 많은 부분이 불확실하고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심각해지고 있는 요즘 여러분과 교우분들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황에 따라 위 사항들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교회가 모든 모임을 온라인으로 전환한 지 1년이 넘긴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가 잘 진행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가 고통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을 성금요일 찬양예배와 부활주일예배로 잘 마무리했습니다. 미국내의 백신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예배와 활동이 조금씩 활기를 찾아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정부가 6월 15일부터 코로나19 비상조치를 해제하고, 사회가 Reopening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서, 온 교인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날을 기대해 봅니다.

1. 실시간 온라인예배: 그동안 실시간 온라인예배를 오전 10시에 드렸는데, 브루클라인 장로교회가 5월 23일부터 하이브리드방식으로 현장예배를 드림에 따라 예배시간을 오전 11시 30분으로 변경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예배를 맡은 목사님들과 전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각 순서를 맡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5월 23일 주일예배부터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Brookline 미국교회가 현장예배와 온라인예배를 병행해서 진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미국교회가 온라인방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교회가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방송실 김영돈 집사님이 한달간 미국교회 방송 봉사자를 training하며 도와주었고, 그 이후 미국교회의 요청에 따라 두 차례 미국교회의 온라인방송을 맡아 봉사했습니다.
3. 중고등부 견신식: 5월 30일부터 주일예배 현장참여 인원을 100명으로 늘였고, 주일예배때 중고등부 견신식이 (3명) 있었습니다.
4. 제직임직식: 6월 6일 주일예배에 제직임직식이 있었고, 4명의 신임권사 취임과 4명의 안수집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5. 토요 아침기도회: 6월 19일 토요일부터 8시 아침기도회가 재개되었습니다.
6. 세례식과 성만찬: 6월 27일 주일예배에는 6명의 유아세례식과 1명의 성인세례식이 진행되었고, 예배당에서는 성만찬이 있었습니다. 세례식과 성만찬은 계속해서 1회용기를 활용해서 준비했고, 이를 위해 김정림 권사와 권사회에서 수고하셨습니다.

7. 찬양대: 코로나19 팬데믹이후 솔로리스트들과 기악팀으로 진행되었던 헌금송을, 5월부터 10여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찬양대가 한 달에 두 번 드리고 있고, 7월부터는 매 주 찬양드리고 있습니다.
8. 찬양대의 찬양 sound와 헌금송 솔로리스트의 음향을 위한 본당 hanging mic 설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9. 방송실: 8월부터 시작할 1, 2부 예배의 진행을 위해 현재 2부 (오후12시)때 봉사할 한 두 명의 추가 봉사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10. 계속해서 매주 드리는 주일예배와 온라인방송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는 찬양대, 찬양팀, 슬라이드 제작팀 (하은혜 집사), 방송실팀, 그리고 예배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중고등부견신례 5.30.2021
최재경 장라나 안민준



제직임직식 6.6.2021
안수집사 : 신준섭 신정욱 박상철 김태훈 전은영
권사 : 김동숙 김영순 이성숙 주미옥



세례식 6.27.2021
유아세례자 :
강지윤 (강태현 / 김예원)
공서아 (공재련 / 고은영)
김레나 (김정호 / 신세아)
김해주 (김수영 / 천민정)
방서준 (방수영 / 김지은)
서이든 (서동현 / 이정윤)
성인세례자
EMILY BELLOWS
(에밀리 벨로우즈)

지난 7월 9일(2021년) 모임에서 다음과 같은 주제와 내용으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지금은 전체 대면 예배가 아직 진행이 되고 있지 않지만 팬데믹 상황으로 더욱 심각해진 환경 문제와 이민자로서의 아이들이 겪는 사회적인 문제들을 중심으로 교인분들과 보스톤의 한인 가정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기도로 지혜를 모으고 의논된 내용들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민교회로써 보스톤한인교회가 이민자로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갈등을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며 대응해 가야 하는지를 의논해야 할 때입니다.

- a.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야 하는 부모, 특히 충분하지 않은 영어와 미국 문화와 한국 문화에서 생기는 차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부당한 처우 혹은 대우를 받아도 특별히 의논하거나 도움을 구할 곳이 없는 교우들 돕기.
- b. 이런 경우 정.평.환. 차원의 작은 세미나를 열 예정. 우선 이메일로 신청자를 받아 줌(zoom)에서 시작함. 이 세미나를 통해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지혜롭고 happy ending으로 잘 마무리 된 사례 등을 나눔으로써 자녀들 혹은 당사자들의 인종차별 혹은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에 대해 대처해 가는 방법을 지혜롭고 평화롭게 찾아 갈 수 있도록 서로 돕는다.
- c. 우선 이 일을 진행할 팀을 구성- 리더:최수경 집사님
- d. 분기에 한번 혹은 몇 달에 한번씩 온라인 상 혹은 오프라인상에서 모여 각 가정 혹은 본인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상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 만들기
- e. 법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고민과 마음을 나누는 쉼어링, 케어링을 하는 모임으로 시작.
- f. 서로 나눈 얘기에 대한 비밀유지-특히 자녀와 관련된 내용이기에 고민을 나누고 서로 쉼어한 내용들에 대한 confidential 에티켓을 지키기

8~9월에 대면 예배가 본격화 되었을 때를 위한 정평환이 준비할 일들...

- a. 예배가 정상화 되더라도 모든 연령층이 모두 백신을 맞기 전에는 친교와 같은 모임은 최소화 하기
- b. 모든 것이 정상화 되어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되더라도 쓰레기를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일회용품구입 않기, 각자 컵 가지고 오기 등등
- c. 교회에 water fountain 설치하기
 - 한 기 설치에 대략 \$1500(기계값, 플러밍, 전기연결) 소요 예상
 - 일층과 지하에 각각 한 기씩을 설치해 교우들이 bottle of water를 사서 마시지 않아도 되도록 도움
 - 친교시간을 위한 매주 5개씩 구입하는 1 gallon water도 구입하지 않아도 됨
 - 장기적으로 지구 환경과 비용 면에서 많은 유익이 예상 됨
- d. 각 가정에서도 미세 플라스틱 혹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대체 용품 구입에 대한 홍보와 정보 나눔- 예)고체 샴푸 사용하기 등등
- e. 각 방에 recycling 과 일반 쓰레기 통 2개를 비치(recycle 이 가능한 품목에 대한 그림을 담은 안내서를 쓰레기통이 비치되는 장소에 붙여 리싸이클 빈에 버리면 안 되는 품목들을 미리 걸러내는 노력
 - Brookline town recycling policy 확인)
- f.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심각성을 홍보하는 5분 영상 만들기

평화와 사랑의 음악회

주제: 평화와 사랑의 음악회

“의와 화평이 입맞춤 때 (Righteousness and Peace Kiss Each Other)”

시간: 4월30일 금요일 저녁 7시 연주회

5월 15일 저녁 7시에Premier Virtual음악회

장소: 보스톤한인교회 본당

보스톤한인교회 찬양대를 중심으로, 본교회 청년1,2부, 정의평화환경위원회가 함께하여 ‘의로움과 화평’을 주제로 한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참여해지는 아시안 인종차별을 직면하면서, 세상에 만연된 갈등의 회복과 평화와 사랑, 정의가 강물처럼 사회 구석구석에 번져가기를 원하는 염원을 담은 음악회였습니다.

관객들이 자리할 수 없는 팬데믹 상황이지만, 우리 주위의 이웃들, 가족들이 받는 고통을 함께 짊어진다는 마음으로 4월30일 금요일 저녁 7시에 보스톤 한인교회 본당에서 뜻있는 음악인들과, 한인기관의 관계자들과 교인들을 중심으로 25명으로 관객을 제한하여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본당 연주와 함께 녹화를 진행한 음악회는5월15일 저녁 7시 보스톤 한인 교회 YouTube stream 으로 , 또 On-line 채널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아시안 인종차별 문제를 같이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웃들과 위로와 평화를 함께 나누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도 많은 분들의 협조와 봉사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협조와 봉사로

참여하여 주시고 기도와 관심을 가져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5월 15일 저녁 7시에Premier Virtual음악회를 보실 분들께 이 음악회의 취지를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순서를 구성 하였습니다. 빈번하게 미국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아시안 인종 차별이 나, 내 가족, 이웃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또 이 불화와 반목을 방관하지 않고 기도로 주님의 의를 구하고 화평을 구하며, 나아가 인종차별이란 뿌리깊은 이 사회 문제에 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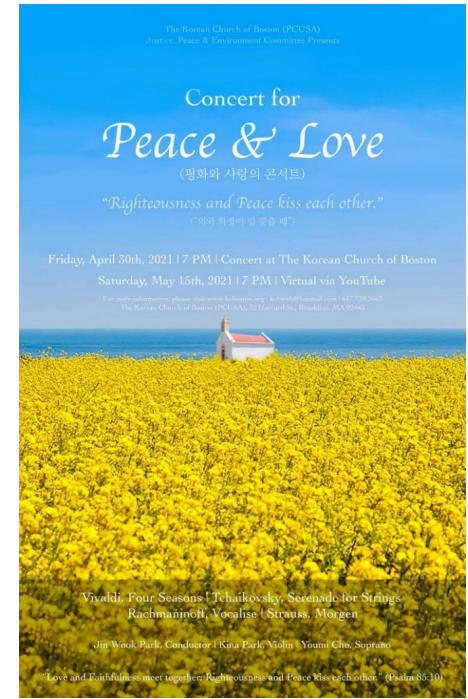
연주한 곡들:

Vivaldi, Four Seasons | Tchaikovsky, Serenade for Strings |Rachmaninoff, Vocalise | Strauss, Morgen

지휘: 박진욱, 바이올린: 박기나, 소프라노:조유미

(Jinwook Park, conductor Kina Park, violin

Youmi Cho, soprano)



Hi Young,

My wife and I enjoyed the concert very much. It was an excellent performance. Thanks to all who made it possible. We are both doing well and avoided getting sick from COVID-19. Did a lot of puzzles and reading.

Best regards,
Ken

.....
On Monday, May 17, 2021, 10:24:50 PM EDT, Lee Young Ghil (ygleekcb@hotmail.com) wrote:

Hi! Ken;
I was delighted to see your name on the list of participants of KCB concert. It is so encouraging to know that we have such a cloud of witnesses like you. Thank you. Hope everything goes well with you.

Young
KCB

보고: 부위원장 최학수 집사
(위원장: 장양술 장로)



“**쉐마의 밤**”은 유초등부, 유쓰그룹, 청년부, 부청, 장년부 예배 등 각 세대와 부서에 따른 예배와 바운더리에 익숙해진 세대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세대를 넘어 3세대가 서로의 문화와 생각, 그리고 삶을 이해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지속된 팬데믹으로 인해 만나서 교제하며 서로 얼굴을 보고 안부를 물을 수 없는 아쉬움이 한껏 커진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6월 5일 토요일 저녁 7시에 쉐마의 밤을 통해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와 줌을 통한 만남의 시간을 준비하셨습니다.

신임 안수집사와 신임 서리집사 대표로 윤병준/이지나 집사님께서 2021년 첫 쉐마의 밤의 촛불을 밝혀 주었고, 쉐마 찬양팀은 팬데믹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찬양에 담아 내었습니다. 어린이 축복송에 이어진 안수집사님들의 자기소개는 “팬데믹에서 배운 것”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서로가 연결되어 있음을 위트있고 재밌는 영상으로 담아서 전달했습니다. 우리 모두 안수집사님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만나면 반갑게 인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쉐마트리오 (육혜진/김지은/김수원)가 준비한 “Amazing Grace with Bach”는 신임 집사님들과 우리 교우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2부에서는 “희야와 옥이 (최윤희/신정욱 집사)”의 알콩달콩한 사회로 진행된 쉐마 골든벨을 통해 각 구역 및 부서가 팀을 이루어 다양한 퀴즈를 맞추며 교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 팀에서 출제한 문제들을 선별하여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너무 재밌는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까지 많은 것들을 퀴즈 속에 담아내어 재미와 웃음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어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은 “르호봇 가족” 이야기를 통해 나누는 삶의 소중함 그리고 그로 인해 사회 속으로 전파되는 따뜻함을 일깨워 주며 우리들의 가슴에 잔잔한 감동과 위로를 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이어진 시상식에서 남동/남서구역팀과 중서3구역이 “쉐마대상”을, 중앙3/중앙5구역팀과 부부청년부가 “골든벨상”을 수상하면서 대단원의 막을 장식하였습니다. 물론 모든 참가하신 팀들에게는 각자의 스토리가 담긴 상을 받으셨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상위에 더 큰 은혜의 복을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교제에 대한 그리움을 쉐마의 밤을 통해 나누면서 토요일 밤을 유쾌하고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각 팀들의 재미있는 사연들을 문제에 녹여내어 주신 각 구역장님들, 동영상 제작과 줌 컨트롤을 위해 밤을 세우며 준비하신 강현기 선생님, 멋진 쉐마골든벨을 기획하고 디렉팅하신 이해승 집사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쉐마의 밤을 위해 헌신하시는 교우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 교우님들의 섬김과 기도로 쉐마의 밤은 앞으로도 “3세대를 이어가는 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20pOlxug9k&ab_channel=Korean-ChurchofBoston

국내 선교 위원회

위원장 김동규 장로

국내 선교위원 : 김동규, 김동숙, 부지형, 양수연, 유승오, 이경자, 이혜원, 윤경문, 윤병준, 정윤원, 조나현

보스톤 한인교회 국내 선교 위원회의 단기 선교 준비 소모임은 매달 네번째 목요일에 모여서 기도와 찬양으로 선교를 준비하고 선교사님과의 지속적인 연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 단기 선교 팀을 보낸다는 계획 아래 준비, 훈련 자료를 모으고 다른 교회의 단기 선교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보다 체계적인 단기 선교 준비와 프로그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아시스 뮤직 나이트 준비 모임은 행사 계획에 따라 위원 간에 이메일 등으로 자료를 나누고 필요에 따라 팀모임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달 Homeless center에 음식을 제공하는 공활사역은 김동숙 권사님이 중심이 되어 교회 각 부서와 협력하여 음식을 요리, 전달하는 방법으로 2020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선교 위원회의 7월까지의 회의 보고 사항입니다.

a. 오아시스 뮤직 나이트:

- 8, 9월을 목표로 연주자 섭외 및 곡목 등을 준비 중
- 9월 공연과 녹화, 10월에 virtual concert streaming을 목표로 준비 중

b. 단기 선교 소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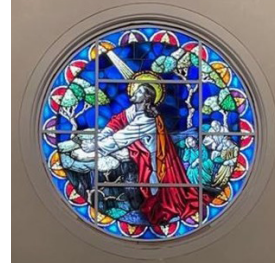
- 2022년 여름 New Mexico(이하 NM)선교를 목표로 준비
- NM 선교지 건축사업 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의 길을 구상 중
- 단기 선교 훈련 자료 등을 교회 website folder에 모아 선교 훈련시 사용하기로 함
- NM 선교지를 위한 찬양과 기도, 그리고 의견을 모으는 온라인 모임을 준비

c. 2021년 공활 사역 점검

- 2021년 매달 공활 사역 활동이 이어지고 있음 - 김동숙 권사님

건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엄재관 장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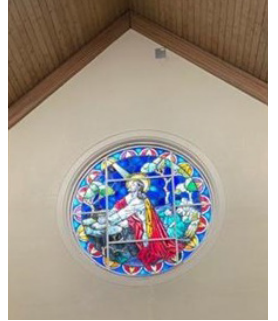
•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스테인드 글라스 작업이 7월 23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제작에 참여 해주신 그분들께 감사 드리고 업체 선정과 진행과정에 힘써주신 최학수 집사님께도 감사 드립니다.

• 이제 2번째 작업인 ECC COMMUNITY 에 AIR CONDITION 설치 하는 일이 남았는데 MAIN POWER ELECTRIC WIRING 작업은 끝났고 INSTALLATION 을 7/24에 합니다. 인스톨 작업이 끝난후 마무리 전기 작업하고 GAS BALANCE TUNING 하면 끝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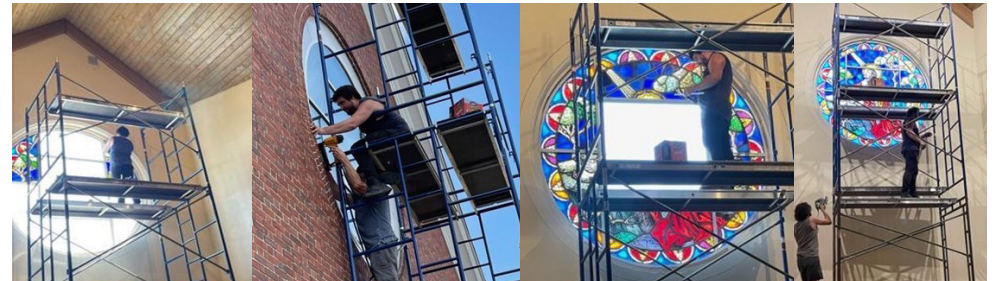
• 본당 천정에서 내려오는 마이크 작업 2개 설치했고,

- ECC CHAPLE LIGHT 도 보수 했습니다.
- ANNUAL BUILDING INSPECTION에 필요한 EMERGENCY LIGHT 8개를 새로 교체하였습니다.



• 이제 남은 숙제는 ECC CHAPLE AIR CONDITION을 보수하는것인데 요즘은 한 여름철이고 FACTORY 에서 자재 수급이 잘 안되어 지금 오더를해도 3.4개월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어차피 여름에 못쓸것 같아 가격이 안정되는 가을철에 구입하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최학수 집사님께서 함께 해주어 잘 할 수 있었습니다. 몸뚱이 주님의 전을 관리하는 일에 동참할 수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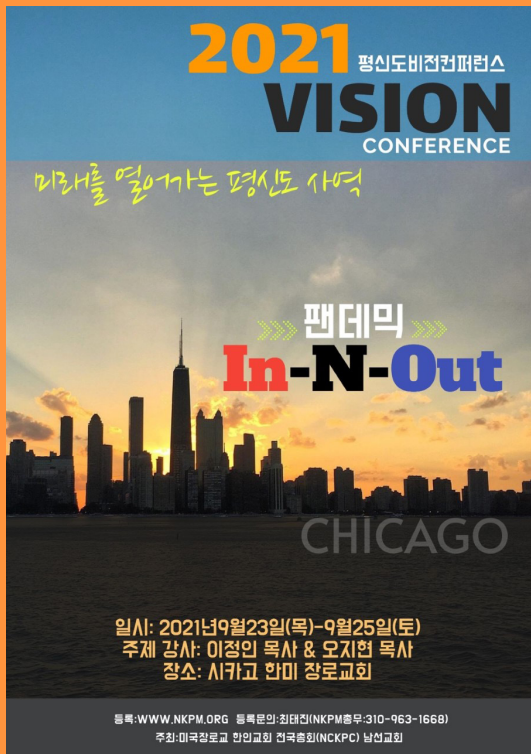


홍보위원회

위원장 김한나 장로

교우 여러분의 마음의 힘이 되어줄 조유미 집사님 (본교회 soloist)의 찬양곡을 교회 웹사이트의 교회 소식에 올려놓았습니다. 많은 애용이 있길 바랍니다
<https://kcboston.org/ministry/?cat=160>
<https://www.youtube.com/watch?v=00Yy7nOuj1c&t=1s>

전국남선교회 주최 평신도 비전 컨퍼런스 2021



참가 원하시는 분은 김한나 장로께 문의 바랍니다.

집사회

회장 채진병 집사

부슬부슬 비가 오는 아침입니다. 이번 달은 유난히도 비가 많이 오네요. 한여름의 무더운 날씨가 그리워지는 날씨입니다.

교우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집사회에서는 2 가지 행사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5월 15일에 있었던 교회 대청소에서는 20여분의 교인들과 사역자들이 참석하여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였습니다. 올해는 교회밖을 중점적으로 르호봇 주변, 엘리베이터와 주방을 청소하였고 청소 후에는 간단한 다과와 함께 서로의 근황을 묻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6월 27일에는 김동숙 권사님과 함께 homeless shelter 봉사를 하였습니다. 100 여개의 도시락을 6명의 집사회 임원과 함께 정성껏 준비하여 shelter에 배달해 드렸습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희 집사회 임원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후반기에도 다시 한 번 참여할 예정입니다.

저희 집사회에 보내주시는 교우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는 저희 집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여름 방학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어린이들의 말씀 축제, 여름성경학교(Vacation Bible School)가 2년 만에 열렸습니다. 팬데믹으로 작년에는 열리지 못했지만, 올해까지도 놓칠 수 없어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첫 이틀은 온라인으로, 그리고 마지막 하루는 야외에서 대면으로 만났습니다. 첫째 날 시작을 앞두고, 여전히 제한된 상황에서 화상으로 만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못내 아쉬웠지만, 오랜만에 신나는 울동과 찬양, 그리고 말씀 앞에 모인 어린이들의 눈빛이 반짝거리고 있음을 모니터 스크린 너머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의 주제인 “Treasured: Discovering You’re Priceless to God”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을 통해 저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팬데믹 기간동안에도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연락을 하고 지내는 어른들과는 달리, 아이들은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관계만을 접하게 된 일이 답답하고 어려웠을텐데, 해맑고 순수하게 찬양하고 기도 드리는 모습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보물들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드디어 서로 얼굴을 마주 볼 수 있었습니다. Larz Anderson Park에 모여 1년 반 만에 함께 힘껏 몸을 흔들며 목청껏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였고, 신나는 게임과 보물찾기 활동 속에서 오래 잊고 지내온 서로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서로 못 만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 어떤 아이들은 이가 빠지고 새로 났고, 어떤 아이들은 키가 훌쩍 자라서 눈을 비비고 다시 보게 될 정도였습니다.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인생의 2-3%인 어른들과는 달리, 15-25%인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정말 긴 시간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요.



사정상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하지는 못하였지만, 한 명, 한 명의 목소리를 듣고 눈을 맞추며 말씀을 전할 수 있음도 오래 기억에 남을 일이었습니다. 소수 민족이었고 곤경에 처했으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귀히 쓰셨던 에스더의 이야기를 전하며, Korean American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누리고 또 전하는 귀한 보물로 선택 받은 우리의 정체성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와주셔서 축복의 말씀을 전해 주시고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신 일은 삼세대 예배를 드리며 목사님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 어린이들에게는 신나고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이번 VBS를 위해서도 온라인과 대면으로 준비하며 참 많은 선생님들께서 수고를 하셨습니다. 전체 준비를 이끄신 최안나 부장 집사님, 찬양을 인도하신 신보경, 박재미 집사님, 초등부 성경공부에 김학주, 안성민 선생님, 유년부 성경공부에 박미정, 육혜진 선생님, 초등부 Cinema에 이예진(Lydia)선생님, 유년부 Arts & Crafts에 박해인, 손효정 선생님, 초등부 게임에 김현아, 이호인(James) 선생님, 유년부 게임에 박재미 선생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내내 온라인 모임 전체를 이끌어 주신 강현기 선생님, 티셔츠를 디자인해주신 이혜민 선생님, 사진 촬영에 윤병준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 회장단(채주영, 구윤지, 최윤희, 황수진, 양수연 집사님)과 교육 1부 위원장인 강상철 장로님께서 더운 날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9월에 다시 만나게 될 때까지 건강히 지내며 몸과 마음과 신앙이 늘 주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게 자라나는 해바라기 어린이들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안수민 교사

담당 목사 윤경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보스톤한인교회의 열정적인 중고등부입니다!

봄이 끝나고, 여름이 시작되며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천천히 대면으로 모임 기회가 생기며 함께, 더욱더 알찬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학기가 끝나갈 무렵, Larz Anderson Park에서 대면예배로 모였습니다. 찬양도 드리고, 설교도 듣고, 또 곧 졸업할 예비 대학생들을 축하하고 축복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1년이 넘도록 스크린을 통해서만 보던 얼굴들을 직접 보니, 그만큼 특별하고 복적복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또 6월부터 토요일 친교모임도 시작했습니다. 기도와 찬양의 시간으로 시작하고, 성경공부도 했습니다. 그 다음, 한주는 보드게임, 한주는 볼링--등등 재밌는 활동들로 시간을 보내며 서로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친교모임이 항상 재밌도록 노력해주신 전도사님, 교사들, 그리고 매주 와주는 학생들까지--감사합니다!

7월 중순에는 Six Flags를 다녀왔습니다. 날씨가 오락가락한만큼 걱정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무사히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끝에는 비가 와서 조금 젖기는 했지만, 그 덕에 더욱 기억에 남을 경험이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7월부터 조금씩 Hybrid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작년 3월부터 진행해온 줌 미팅은 계속되지만, 몇몇의 학생, 교사들, 그리고 전도사님은 대면으로 모여서 줌미팅을 하는 학생, 교사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8월부터는 더 많은 학생들이 대면으로 모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항상 응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 날씨, 시원하게 보내세요!

심동근 전도사님이 7월말을 마지막으로 귀국하시며 그동안 함께했던 학생들과 선생님, 그리고 강상철 장로님께 아쉬운 마음으로 작별인사를 하셨습니다. 아쉽지만 그동안 줌과 여러 모임을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 가족과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신앙을 키워가는 여정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음 사역도 잘 감당 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일년간 섬김과 기도와 도움으로 중고등부를 지원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과 사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청년 2부는 은혜가운데서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줌으로 금요예배와 주일 성경공부를 모여 함께 예배와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7월달 동안에는 점차 풀려가는 팬데믹 상황에 맞추어서 청년들의 요청에 의해서, 한달에 한번씩 야외 activity를 가지고, 한달에 한번씩은 주일 오후에 간단한 점심을 나누며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5월달에는 야외 activity로 Newport에 가서 오랫동안 바닷가에서 청년들이 즐거운 시간들을, 그룹별 사진대항 기회도 가졌습니다(우승팀:임주광,부지형, 윤경문 조). 7월에는 Rockport에 가서 한여름에 더위를 식히며 교제를 나눴고, 7월 24일에는 보드게임도 함께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5-6월에는 청년 2부에 기쁜 일들이 많았는데, 5월에 양원제/최효영 자매, 6월에 김호인/Justin Han 교우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두 커플이 다 원래 2020년에 결혼식을 예정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연기되어, 다행히 이번에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아울러, 6월에는 에밀리 벨로우(Emily Bellows) 자매의 세례식을 갖게 되어서 청년들 모두가 축하해 주며 기쁜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김수영 목사님의 둘째 딸 해주의 유아세례도 받아 함께 축하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5월 쉼마의 밤에도 함께 참여하며 교회 온 가족분들과의 오랫동안의 교제를 누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활동교우가 될 수 있도록 열린 '청년들을 위한 멤버십 class'가 6-7월 진행되어서 4명(김현모, 부지형, 임주광,정윤원)의 청년들이 클래스를 마쳤으며, 8월 첫 주에 교인위원장님이 베풀어 주시는 점심으로 축하파티를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8월달에 교회예배 시간이 정상화됨에 따라 청년 2부에서도 대면/비대면(줌)의 Hybrid 방식으로 모임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부부청년부

회장: 최정규, 심진희 집사

안녕하세요.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네요. 모두들 pandemic가운데에도 각자의 방법으로 여름을 알차게 보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저희 부부청년부는 꾸준히 격주로 ZOOM을 통해 모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한 주는 한 조씩 돌아가며, 각 가정의 사진과 이야기를 공유하는 교제의 시간으로 모임을 갖고, 다른 한 주는 김수영 목사님께서 “동행, 회복, 새 일”의 주제를 가지고 느헤미야를 통해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지난 6월 11-12일에는 “팬데믹으로 변화된 삶 속에서 품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온라인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초청강사님으로는 참 감사하게도 한국에 계시는 “김희권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부청 졸업가정까지 포함해 총 27가정이 넘게 참여하여, 풍성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모였지만, 뉴햄프셔 Pilgrim Pines에서 대면으로 가졌던 수련회 못지않게 뜨거웠고, 깊은 나눔이 있었습니다.

김수영 목사님과 저희 부부청년부 회장단은 7월 방학 후, Post-Pandemic을 준비하며, 8월부터 조심스럽게 대면으로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빨리 COVID-19이 없어져서, 모두가 대면으로 만나 함께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에스더 여선교회

회장 김정연 집사
보고 서기 임진희 교우

따뜻한 봄 바람을 맞으며 에스더 활동을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것 같은데 벌써 여름이 시작 되었습니다. 올 여름은 뜨겁게 시작하는듯 싶더니 비오는 날이 계속 되고 있네요. 보스톤 장로교회 여러분들은 올 여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코비드 백신의 효과로 많이 좋아진것 같지만 아직은 조심스럽게 일상을 회복하는듯 합니다. 에스더 여선교회에서는 5월 15일 집사회 주관 교회 대청소에 참석하여 손을 보태었구요. 강다애 그리고 최윤희 집사님께서 어머니 주일 카네이션 (5월 9일)과 임직식 코사지 (6월6일)를 직접 준비하여 전달해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듯 에스더의 큰 기둥이었던 안은신 집사님 (에스더 선교부장) 그리고 최윤희 집사님 (에스더 부회장) 가정이 타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여러 곳에서 헌신하시며 열심으로 봉사하셨던 따뜻한 두 분 가정을 축복하며 보내드리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고 계신줄 압니다. 에스더 모임 내에서는 김정연 집사님 (에스더 회장)께서 에스더를 대표하여 환송회를 해주셨답니다. 새로운 일터에서 또는 학교에서 새롭게 적응할 두분 가정을 위해 그리고 몸은 멀리 떨어져 지내겠지만 좋은 소식들이 계속 오고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가장 큰 활동인 예배후 친교 준비는 아직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이 늘어나고 계시지만 친교를 준비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어 에스더에서는 조심스럽게 시작할 시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올 가을 코비드가 종식되고 많은 분들이 안전하게 전처럼 만나볼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비가 잦은 7월, 조금 덜 덥지만 습도가 높아 짜증 지수가 높아질 수 있는 날씨입니다. 시원한 음료와 차한잔으로 걱정과 근심을 잊어버릴 수는 없지만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생각해 보며 뜨거운 여름을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실 수 있길 기도 드립니다



어머니주일 카네이션과 임직식 코사지



안은신 집사님, 최윤희 집사님 환송모임

우리는 매 순간 크고 작은 산을 넘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겹게 산을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는 시간들 이라고 합니다.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시기를 그래서 우리 삶의 모습이 점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마리아가 되길 소망하며 이번 2/4 분기 마리아의 활동을 보고합니다.

1. 여성 사역 목사님과 목사님 사모님들 생신에 (4/11, 4/25, 7/16) 카드와 작은 선물을 보내 드리고 있으며, 마리아 회원들이 기도로 축복해 드리고 있습니다.
2. 4/25 일 상반기 월터 봉사: 코비드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없었지만 김동숙 권사님을 도와 장보기, 음식준비, 포장, 배달등 나누어 준비 하였습니다. 부족하지만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3. 매달 둘째주와 넷째주에 마리아 여성 중보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많은 기도 응답과 위로를 경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간단한 야외모임도 가져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교회의 모든 여성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4. 마리아(담당: 진정원 집사)에서 교회 입구와 community hall 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여름을 맞이하여 작지만 새롭게 장식했습니다.



마리아 여선교회 중보기도 모임 소개

곽서영 집사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롬 8:26)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롬 8:34)

삶과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많은 분들의 기도를 통해 어려움을 무사히 이겨나간 경험들이 쌓이면서 중보기도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또 기도의 빛을 지게 되면서 기도모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보기도모임이 교회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몸뚱신 교회를 기도로 섬기고, 또 그 지체인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조금씩 해오고 있었습니다. 마리아 여선교회를 섬기게 되면서 여선교회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던 중, 중보기도 모임을 제안하게 되었고, 함께 한 장로님들과 이성혜 사모님, 그리고 마리아 회원들이 같은 마음으로 찬성하여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마리아 여선교회이지만, 기도의 무릎을 꿇는 모든 여성 성도들을 초대하고 싶어서 에스더와 권사회 회장님들께 초대장을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

아무런 훈련도 되어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끌어 가시리라 믿고, 또 막으신다면 언제라도 그만 두겠다고, 말기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기도를 사모하는 자매들이 평일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저녁을 준비하고 한걸음에 달려오셨고, 몇몇 권사님들께서도 동참해 주셨습니다. 함께 모여 찬양도 하고, 꺼내기 어려운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위로하며 눈물로, 간절함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되면서는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지만, 중보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는 마음들이 모여, 오히려 더 모양을 갖춰가고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자매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 어렵고, 기도제목을 나누는 것도 편하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함께 중보기도문을 읽으며 교회, 예배, 성도, 교역자분들을 위해, 나아가 사회, 국가, 세계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제목과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눈으로 보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서로를 중보하며,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자매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연약한 믿음을 붙잡고 일어나기도 합니다.

현재, 매달 두번째 수요일과 네번째 화요일 저녁 7시 반에 줌으로 중보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회원 뿐 아니라, 교회의 모든 자매들께 열려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hemkwak@gmail.com). 함께 못하시더라도, 각자의 처소에서 어둠을 밝히는 기도의 빛으로 주께 영광 돌리시고, 어려운 시기를 승리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어제

한정인 집사

어제는 중보기도모임에서 기도제목을 나눈 후 맞는 주일 예배였습니다. 모두들 지금 나의 기도 제목을 알고 계셨지요.

찬양대 자리에 앉아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니 눈에서 물이 새어 나왔습니다. 누가 볼새라 손으로 새는 눈을 지그시 누르고 있자니 옆에 계신 기도모임 자매님이 티슈를 손에 가만히 쥐어주셨습니다. 그게 더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눈빛만으로 기도제목을 나눈것만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여유있게 새는 물을 닦아 낼 수 있었습니다.

여느때와 같이 찬양팀의 찬양을 들으며 입밖으로 새어 나오는 부르짖음을 주님앞에 간절히 읊조렸습니다. 육신의 나약함이 영의 나약함이 아니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고 나오니 이곳 저곳 흩어져 예배드리던 중보기도자들이 모여들어 나에게 주먹을 불끈 쥐어보이며 기도하고 있다고... 또 한분의 중보기도 자매님이 차마 내게 말은 꺼내지 못하지만 촉촉해진 눈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말문을 생략하시는걸 보며 또 하나의 지원군이 있었구나 생각하고 나도 모르게 말문을 잃었습니다. 그냥 이분들을 주님이 대신 보내주셨구나 ... 부끄러움도 나누고... 때로는 간절한 기도제목도 함께 나누는 중보 기도자들의 뜨거운 기도의 힘이 다시 나를 주님 앞에 나로 서는 위로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주말 나이드신 두 어머니를 뵙고 오는 착잡한 긴 여정 속에서도 차 한잔 나누자고 하시는 기도 자매님을 통해 '또 하나의 위로와 사랑을 보내시는구나'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약하나 강한 주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시는게 지금 얼마나 따뜻한 등 두드림으로 다가오는지...

우리 모두 함께 중보기도자로 사는 이 모든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말 길, 눈 길, 손 길, 다 감사합니다. 남에겐 작은 아픔이 때로 내겐 큰 아픔이 되기도 하고 다른이에게 작은 두려움이 내게 큰 두려움으로 닥쳐올 때도 또 사소한 일로 화가 날 때도 중보기도 팀에 기도제목을 올려놓으며 이 더위에 얼음이 녹듯이 내 문제 또한 녹아내리는 체험을 하며 중보기도가 나에게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안에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나의 나 된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유아세례를 위한 신앙간증문

부모: 강태현/김예원

유아 세례자: 강지윤 Caroline Jiyoon Kang

(2019. 12. 24. 보스톤 출생)

안녕하세요 저희는 강지윤의 부모인 강태현, 김예원 가정입니다. 오는 6월 27일에 저희 딸인 강지윤이 유아세례를 받을 수 있게 허락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저희 부부는 아이가 태어난 지 벌써 18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아버지인 저 역시도 모태신앙으로 신앙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윤이도 유아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기다려왔기 때문에 이번 유아세례는 어느 때보다 기쁘고 기다려지는 순간입니다.

비록 코로나 상황 속에 지윤이를 키우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이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감사의 고백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는 학생부부로서 신생아인 지윤이를 누군가에게 맡기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을 지 염려가 되었고 저희가 아직 누군가를 신앙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에 학교에서의 모든 수업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지윤이의 출생부터 현재까지 저희 부부는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면서 공부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역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염려를 해결해주시고 항상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윤이도 자라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체험하고 감사의 고백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또한 이번 유아세례를 준비하는 기간에 저와 제 아내는 딸을 신앙적으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하고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신앙인으로서의 바람직한 모습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저희는 이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한번 느꼈던 것처럼 지윤이도 항상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고 어떤 환경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인으로 양육하고 싶습니다. 지윤이도 자라나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성공과 기쁨을 겪기도 하고 실패와 시련 역시 피할 수 없을 것 입니다. 하지만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결국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점을 꼭 저희 아이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축복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련의 순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인으로서 양육하고 싶습니다.

유아세례를 위한 신앙간증문

부모: 방 수영/김 지은
유아세례자: 방 서준 (Aiden Seojune Bang,
2020. 2. 23, 뉴튼 출생)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서준이를 허락하시어 유아세례를 받을 수 있게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년이 조금 넘는 시간, 아이를 낳고 처음하는 육아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 저희를 자녀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게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관점이 전과는 확연히 달라졌고 아이로 인해 표현할 수 없는 감격과 행복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모자식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춰보게 되었습니다. 서준이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감히 하나님의 사랑에 빚대어 가늠해보며 하나님의 사랑의 무한함을 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다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서준이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서준이를 온전히 이해하시고 위로하실 것이며, 우리는 모든 순간에 서준이를 지킬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어느 때에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52)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서준이를 예수님처럼 균형잡힌 모습으로 양육하기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구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보물 서준이를 주님 안에서 주의 자녀로 키울 수 있도록 부모인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게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보스톤 한인교회
The Korean Church of Boston
(PCUSA)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T: 617-739-2663
F: 617-739-1366
www.kcboston.org
담임목사: 이 영 길

